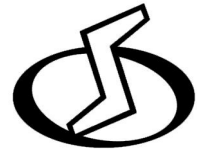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 15호 2006.2.1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 고흥길/편집인: 조영기/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번지 국회사무처 속기과 전화788-2371 7 FAX:788-3560 4

이사장 신년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며……”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해 관심을 가지고 속기협회를 지켜봐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속기협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속기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인사말을 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오를 갖고 1년 동안 집행부를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되돌아보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디지털사회, 디지털오션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이동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변화하는 속기사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을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디지털 형태의 문자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속기인들은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것을 융합시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국회를 구축하게 되면서 문서 형태의 기록보다 전자매체 형태로 된 기록이 더 편리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미디어를 통한 영상회의록이 서비스되어도 중요한 순간에는 여전히 책자 회의록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시대에 맞게 정확한 기록을 보다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속기인들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다변화로 인해 속기의 곤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시간 서비스에 익숙해진 환경은 우리에게 능숙한 속기술과 풍부한 경험, 폭넓은 상식과 명석한 두뇌, 문장력 등의 자질과 교양을 요구합니다. 변화하는 환경이 요구하는 자질과 교양을 갖추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속기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속기인들이 서로 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속기인들이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史官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위상을 찾도록 우리 협회가 여러분들의 뜻을 대변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대한속기협회 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회 등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속기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입회원도 늘어날 것입니다. 속기협회가 양적인 성장에 발맞추어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새해 새 출발의 자리에서 집행부는 대한속기협회의 목표를 향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열정을 모으겠습니다.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열린 마음 그리고 용솨음치는 열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김창진

2005년도 사업 결과 보고

▶ 제13회 속기학술세미나가 충남 태안의 블루오션리조트에서 7월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회속기사 61명을 비롯한 법원속기사 6명, 의회속기사 25명, 그 외 32명 총 124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의회기록과 정치문화」라는 주제로 노회찬 국회의원, 「민선지방자치 10년」이라는 주제로 박봉국 천안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45차 인터스테노 총회(2005. 7. 23일~7. 29)에 본 협회는 박정호 이사를 단장으로 이경식 이사, 이순영 국제이사, 홍기표 회원, 황은화 회원, 이봉선 재정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중국 대표단과의 미팅은 앞으로 아시아 국가 간 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 13회 속기경시대회를 8월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속도 부문과 디지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입상자는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속도 부문은 (1위) 최 기 예, (2위) 이 은 영, (3위) 김 정 아

-디지털프로그램(녹음) 사용 부문은 (1위) 김 지 현, (2위) 김 정 아, (3위) 박 효 진입니다.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1호 속기계(2004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14호, 제15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클릭!!! www.steno.or.kr)

이사회 소식

▷ 제200차 이사회는 2005년 6월 16일 개최되어 보고사항으로 회무보고가 있었고 ▲ 각 부 사업계획 조정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부, 국제부, 자격심사위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 기타의건으로 학술세미나 회의 참여 독려 방안, 속기경기대회에서 속도 고려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 제201차 이사회는 2005년 8월 23일 개최되어 ▲ 제13차 세미나 개최 결과 보고, 인터스테노 참석 결과 보고, 속기경기대회 1차 시험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 속기경기대회 2차 시험 실시 여부 문제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 제202차 이사회는 2006년 1월 18일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2005년도 결산감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제39회 정기총회 관련 논의가 있었고 ▲ 2005년도 결산서를 상정하여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별 이의 없이 2005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부 사업계획에 대해 이사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 9월 인터스테노, 6월 속기학술세미나, 전국속기경기대회, 속기정보화사업 설명을 듣고 속기계 발간 및 유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신입 인사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 연 화

대학을 졸업할 무렵 친구를 통해 우연히 따라간 학원에서 처음으로 속기를 접하게 된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아, 속기사라는 직업도 있었구나!’, 평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되어 마냥 행복했다. 그렇게 시작한 속기는 재미있었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년 광주 남구의회에서 속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속기를 시작할 때부터 꿈이었던 국회속기사가 되고자 서울 노량진으로 상경하여 시험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경험 삼아 치렀던 시험에 합격하여 갈등을 하였으나 부모님이 곁에서 직장에 다니기를 원하셔서 부모님이 계신 광주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다.

내가 취업 준비할 당시에는 국회에서 매년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만 생각하고 공부할 수가 없어 일단 속기 경력을 쌓자는 생각에서 2001년도에 속기 실기시험을 보고 광주지방법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속기사의 업무 처리량에 비해 근무 여건이 좋지 않았고 법원일반직과 너무 다른 처우에 실망을 하게 되면서 차츰 왜 이곳에서 일해야 되는지 회의가 일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에서 4년을 넘게 일했지만 속기사에 대한 처우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광주가 고향인 내가 적지 않은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 생활을 시작할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속기사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2003년부터 다시 시험을 준비하였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2005년은 내게 그러한 해였다. 속기를 시작하면서 꿈꾸었던 국회에 입사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입사한 이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냈는데 어느덧 6개월이 돼 간다. 하루하루가 다르고 새로움을 느낀다. 아마도 속기사로 일하는 동안은 계속 이러할 것이다.

국정감사나 정기국회가 끝난 지금 나는 속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맞춤법, 띄어쓰기는 물론 이거니와 아는 만큼 들린다고 했던가. 원고를 작성하다가 간혹 나의 짧은 배경지식에 스스로 발끈할 때가 있곤 한다.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가면 간혹 발언자들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발언자가 내용을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심코 넘어가는 내용을 선배님이 여지없이 지적하시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선배님이 너무 존경스럽다. 평소에 신문 등을 보며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회의가 많은 날이면 체력이 부족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속기라는 든든한 울타리로 위인 선배님들과 동기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좀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열심히 배우며 즐겁게 일해야겠다.

2005년 입사 동기 파이팅!!!



<이연화, 신재선, 이현아, 정숙>

회원 동정

♡ 승진~축하합니다.

- 이승철(국회사무처) /문화관광위원회 입법조사관 → 부이사관 (2006. 1. 12)
- 최예숙·권영찬(국회사무처) /의사국 속기과 속기사무관 → 서기관(2005. 7. 1)
- 신중식·최윤정(대전광역시의회) /7급
- 김미영(경상북도의회) /7급
- 이기욱(경상남도의회) /7급

♡ 전보~수고하세요.

- 박정호(국회사무처) /여성위원회 입법조사관 → 행정자치위원회 입법조사관(2005. 1. 15)
- 김치원(국회사무처) /이사관 → 특별위원회 전문위원(2005. 4. 1)

♡ 파견복귀~반갑습니다.

- 홍순관(국회사무처)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교육훈련 파견 → 윤리특위 전문위원(2005. 1. 24)

♡ 퇴직~수고하셨습니다.

- 임희용(국회사무처) /2005. 10. 4
- 최윤정(국회사무처) /2005. 7. 6
- 홍명진(국회사무처) /2005. 3. 2

♡ 입사~환영합니다.

- 이연화·정숙·이현아·신재선(국회사무처) /2005. 8. 24

♡ 결혼~축하합니다.

- 조영기(국회사무처) /2005. 2. 13
- 김희준(국회사무처) /2005. 3. 26
- 박정현(국회사무처) /2005. 8. 27
- 장미옥(전라남도 신안군의회) /2006. 3. 11

♡ 파견~수고하세요.

- 최윤정(국회사무처) /미 위스컨신 매디슨대 대학원과정
(2005. 8. 3~2007. 8. 2)
- 고경효(국회사무처) /국내주간대학원 석사과정
(2006. 1. 13~2008. 1. 12)

♡ 환직~축하합니다.

- 이정선(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일반직
- 신명월(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일반직
- 정은진1·정은진2(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일반직

♡ 기타

- 윤태원(윤킴) /지방자치연구소 자치세계 개소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www.steno.or.kr에는 협회소식 및
속기계·소식지 등 협회에서 발간된

각종 자료가 있어요!!!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2호)에 실을 원고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김영중(tel 02-788-2371)에게

연락 주세요.